

청지기 직분과 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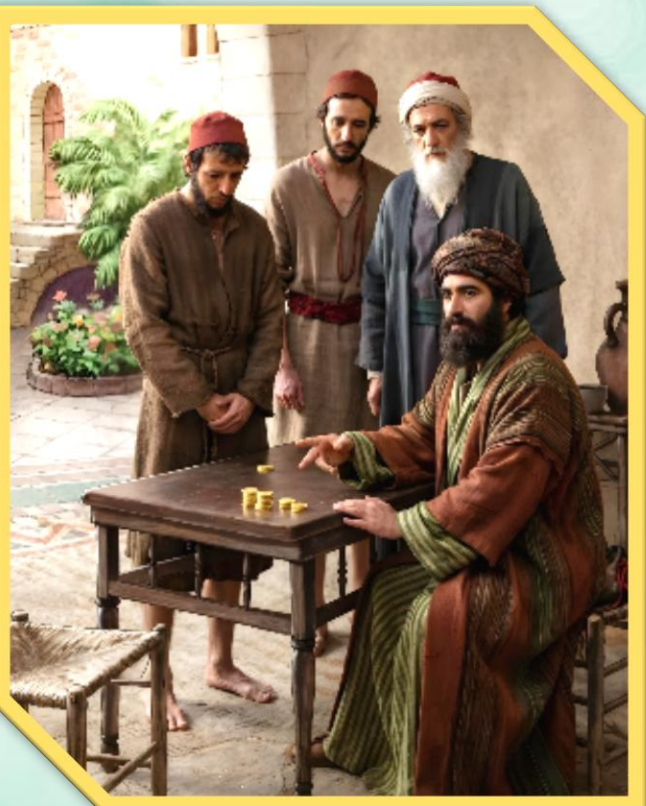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 (고후 8:9)



청지기 직분(stewardship)은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실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낼 당시 교회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청지기 직분은 바울이 추진하던 사역, 즉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돕기로 약속했고, 이제 그 약속을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미 이 일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떤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아니라, 교인들이 어떤 동기와 열정으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 직분의 근원:

-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
- 받은 은혜를 보답함



어떻게 청지기 직분을 실천할 것인가:

- 좋은 계획을 세움
- 올바른 태도



청지기 직분을 잘 실천한 결과:

- 교회가 하나로 연합함





청지기 직분의 근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 8:9)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게 베푸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고후 8:1-2)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고, 그들은 “관대한 마음으로 풍성한 헌금을 모금”했습니다(고후 8:2). 이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그들과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요 15:13; 엡 5:2; 갈 2:20; 요일 3:16).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할 것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고후 8:9)

이 세상에 살기 위하여 하늘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지위를 내려 놓으시고 목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전한 하늘을 떠나시고 원수의 적진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관을 가시관으로 바꾸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보답함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고후 8:5)

은혜를 받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

(고후. 8:9)

자신을 예수님께 드림

(고후. 8:5)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해 달라고
간청함 (고후. 8:4)

자신들도 가난했지만 힘에 겹도록
베풀었습니다.(고후. 8:2-3)

그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
(고후. 9:15)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셨기에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림으로 감사를 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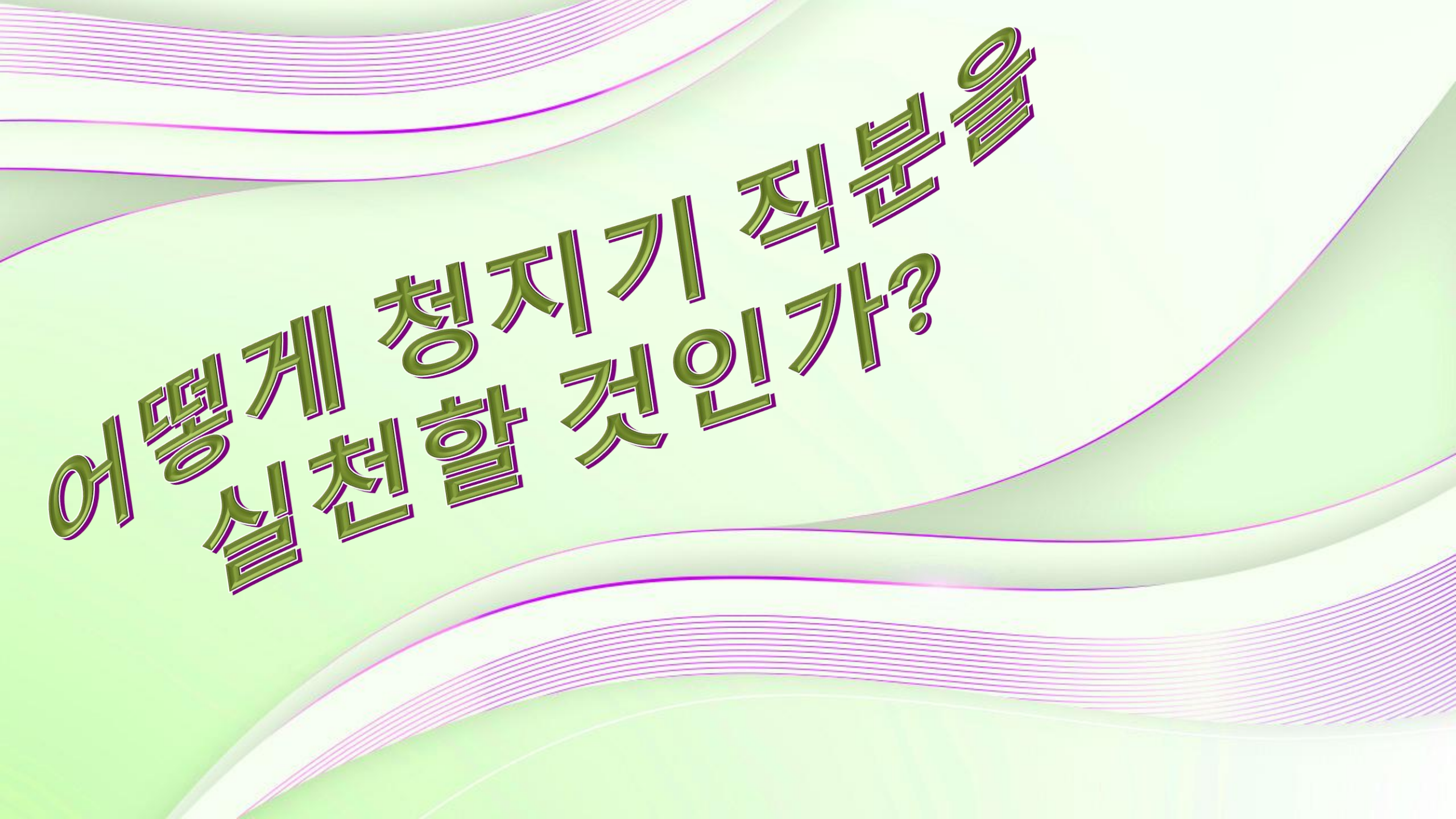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려는 열망 (고후.
9:11a)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

진정한 사랑
(고후 8:24)

관대함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깃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청지기 직분을
실천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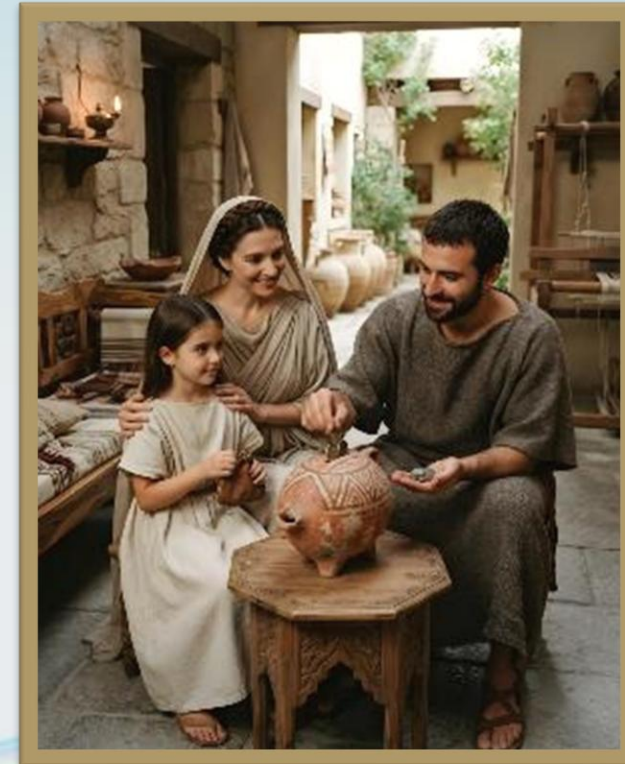
좋은 계획을 세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아가야 지역교회들에서 특별 헌금을 모금하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롬 15:26).

바울이 1년 전 골로새에서 이 계획을 제안했을 때는 구체적인 목표액은
정하지 않았으나 교인들은 열렬히 호응했습니다(고후 9:1-2). 교인들
각자가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 헌금하기로 결심했습니다(고후 9:7).

헌금을 정할 때, 각 가정은 자신의 재정 형편을 살펴보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바울이 그의 계획에 포함시킨 점은 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전달하려고 미루지 말고
매주 조금씩 따로 모아두라는 것입니다(고전
16:2). 이렇게 하면 바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목표한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됩니다(고후 9:3-5).



올바른 태도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고후 8:3)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적 예를 들면서 골로세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바르고 본이 될 만한 태도로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즐거움으로
(고후. 8:2a)

나누어 줄 수 있음에 행복을 느낌

풍성(관대)하게
(고후. 8:2b)

자신들의 가난함이 헌금 드리는 것을 막지 못함

기쁨으로
(고후.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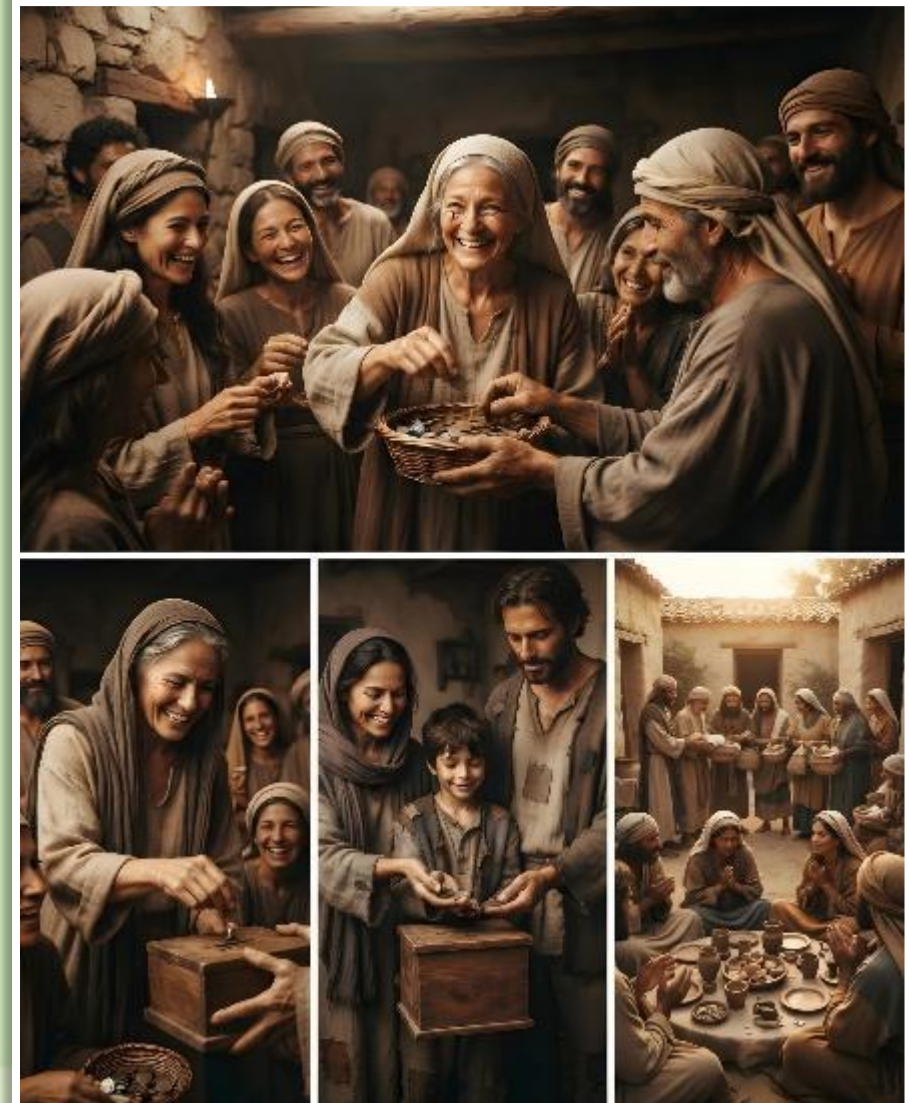
자진해서 즉흥적으로 드림

특권으로 여김
(고후. 8:4)

자신들의 헌금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함

거룩한 헌신을
실천함 (고후. 8:5)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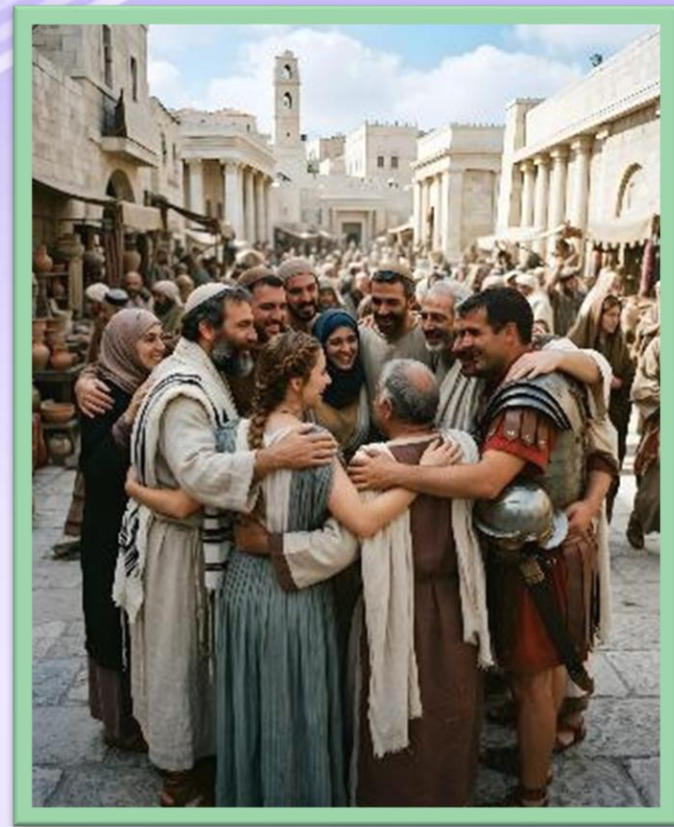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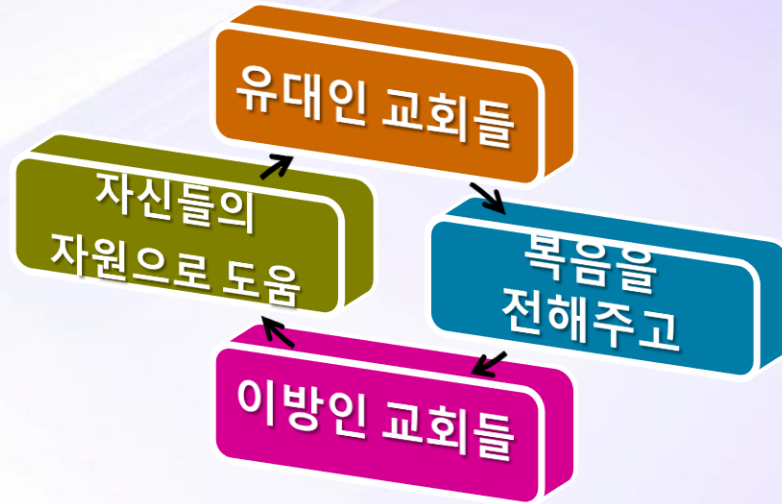
청지기 직분을 잘 실천한 결과

교회가 하나로 연합함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후 9:12)

예루살렘교회로 보내진 헌금은 또 하나의 좋은 영향력이 되었습니다(고후 9:12).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도움과 감사의 관계로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롬 15:26-27). 이로써 바울이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방교회

합회/협회/
연합회

지회

대총회

또 다른 축복은, 그 당시 제물을 다루었던 방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한 교훈을 준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 일은 질서 있게, 그리고 올바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헌금 모금을 감독하도록 임명했고, 여러 교회는 그 일을 돕기 위해 형제들을 임명했습니다(고후 8:16-24). 이는 예루살렘으로 보낼 헌금을 모으고 전달하는 데 있어 최적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십일조와 선물, 그리고 헌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은 그분의 청지기들에게 맡기신 자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직접 베푸신 것 그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자기이익을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복과 왕관을 벗어 놓으시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화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려고, 자신의 부요함뿐 아니라 생명까지 내려놓고 희생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업을 즐겨 도움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렌 화잇 (하늘을 향하여, 4월 9일)